

열왕기하 1. 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왕상 22:41-왕하 1:18)

들어가기

열왕기상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비참한 죽음을 소개한 뒤,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마무리됩니다. 그 후 열왕기하 1 장은 ‘아합’ 왕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야’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한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고,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야’는 아버지만큼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껏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배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하시야’ 왕은 난간에서 떨어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운명을 걱정하던 ‘아하시야’ 왕은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뿔’에게 신하를 보내어 자신의 운명에 대해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신을 찾아가는 큰 죄를 저지른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아하시야’에게 보내어 그의 죄를 책망하게 하시며, 그가 결코 낫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1.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한 간략한 소개 (왕상 22 장 41-50 절)

1) 유다 왕 ‘여호사밧’

- 아버지 ‘아사’ 왕과 어머니 ‘아수바’ 사이에서 태어남.
- 35 세에 유다의 4 대 왕으로 등극해 25 년 간 유다를 다스림.
-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는 뜻.
- ‘히스기야’와 ‘요시아’ 왕과 더불어 유다의 칭찬받는 성군으로 분류됨.

2) ‘여호사밧’의 업적과 실정

- 업적
 - ①. 아버지 ‘아사’ 왕처럼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않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려 노력!
 - 아사 왕처럼 유다에서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들을 몰아냄.
 - ②. ‘아사’ 왕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던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냄.
 - ③. 왕이 없던 에돔을 관리하며 유다의 다스림을 받게 함.
- 실정
 - ①. 산당을 폐하지 못했어 백성들이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지내게 만듦.
 - ②.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화평을 맺음!
 -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혼인시킴 (역대하 18 장 1 절)
 -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전쟁에 참여함.
 -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과 함께 선박을 제조하여 오빌로 금을 구하러 가고자 함.
 - >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되게 하시며 그 일을 막으심!
(역대하 20 장 37 절)

3)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5 대 왕이 되었습니다.

- ‘여호람’의 뜻은 ‘여호와와는 높으시다’ 는 뜻
-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다윗’의 길을 따르려 하지 않고, 악한 길을 갔던 왕.
- 아마도 아내 ‘아달라’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측

2. ‘아합’이 죽은 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 되었습니다. (51-53 절)

- ‘아하시야’ 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소유 혹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는 뜻
-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림.
-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

3.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가 불의의 사고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왕하 1 장 1-8 절)

1) 1 절 주목,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 강력한 힘을 가진 ‘아합’ 왕은 모압을 북이스라엘의 속국으로 관리하며 동맹관계를 맺음.
 - 참고로 모압 왕 메사의 모압 비석은 오므리 왕과 그의 아들이 모압을 지배한 일을 언급.
- 그런데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은 북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시작했다는 것.

2) 이때 ‘아하시야’ 왕은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자신의 병이 빨리 완쾌되지 않을 때, ‘아하시야’ 왕이 선택한 결정은 무엇인가?
 - 에그론의 우상 ‘바알세뿔’에게 신하를 보내 자신의 운명을 알아오게 함!
- 참고로 ‘바알세뿔’은 직역하면 ‘파리들의 신’ 이란 뜻
 - 당시 사람들은 파리 형상으로 된 이 우상이 날벌레들의 재난을 막는 힘이 있다고 여김!
 - 곧 ‘아하시야’는 자신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된 것이 마치 날벌레들이 달려들어 그렇게 된 것처럼 여기며, ‘바알세뿔’의 힘을 빌어 물리쳐보겠다고 생각했다는 것!
 - 이는 당시 그의 신앙 상태/영적 상태가 얼마나 잘못돼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 줌.
- 이때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엘리아’에게 보내어 ‘아하시야’의 잘못을 책망하게 하심!

①. 3 절 후반부를 주목, ‘...,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뿔에게 물으러 가느냐?’ 고 책망하심!

-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세뿔을 찾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세!
(et. 성도가 점 집을 찾고, 우상을 찾는 것이 옳은가?)
-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성도는 먼저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볼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

②. ‘아하시야’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심!

- 결국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에 높게 된 것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

- ‘아하시야’의 신하들은 즉시 ‘엘리야’가 전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왕에게 전하였음.
 - 신하들의 말을 전해 들은 ‘아하시야’ 왕은 그 말씀을 전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함!
 - 이때 신하들은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했나?
 - ‘털이 많은 사람’ + ‘허리에 가죽 띠를 두른 사람’이라 설명.
 - ‘엘리야’는 늘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다녔음.
 - 그래서 ‘아하시야’는 이 두 표현으로 그가 선지자 ‘엘리야’란 사실을 단번에 알아챈.
 - 참고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항상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성도들이 되자!

3)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란 사실을 확인한 ‘아하시야’ 왕은 즉시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50 명을 보내 ‘엘리야’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9-18 절)

- 그럼 ‘아하시야’ 왕은 왜 오십부장과 군사 50 명을 보내어 ‘엘리야’를 데려오게 했을까?
- ‘아하시야’의 군사들이 ‘엘리야’에게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산 위에 있는 ‘엘리야’를 발견한 오십부장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왕의 명령대로 내려와 같이 가지고 요청함.
 - 이때 ‘엘리야’는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들을 다 불사를 것이라 선언함! (참고로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을 상징했고, 특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내린 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상징!)
 -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오십부장과 50 명의 군사들을 다 불살라 죽이는 일이 발생함!
- 그러자 ‘아하시야’ 왕은 다시 오십부장과 군사 50 명을 ‘엘리야’에게 보냄!
 - 그런데 저들에게도 동일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불살라 죽이는 일이 발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야’ 왕은 또다시 오십부장과 군사 50 명을 ‘엘리야’에게 보냄!
 - 곧 자신이 보낸 102 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깨닫고 자기 죄를 뉘우치며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했는데, ‘아하시야’ 왕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것!
-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할 장면 하나! -> 3 번째로 ‘엘리야’를 찾아온 50 부장의 자세!
 - 13 절 주목, ‘...,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 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 곧 그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며, 겸손하게 나아가 자신과 자기 부하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길 구했다는 것!
 -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란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자! (야고보 4 장 6 절)

- 이에 하나님의 사자는 ‘엘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갈 것을 명함!
- 그로 인해 ‘아하시야’ 왕을 만난 ‘엘리아’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아하시야’ 왕에게 전해 주었음!
- 결국 ‘아하시야’ 왕은 ‘엘리아’가 전한 말대로 병상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즉위한지 2년만에 죽음을 맞게 되었음!
 -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3 번이나 반복되었음!
(하나님의 사자 -> ‘엘리아’, 왕의 신하들 -> ‘아하시야’, ‘엘리아’ -> ‘아하시야’)
 -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는 것!
- ‘아하시야’ 왕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가 죽자 동생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 되었음.

4.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결심한 내용이 있다면?

5. 중보기도 나눔